



# 일본경제리뷰 No.19\_05

## < Special Issue >

### 연결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일본의 과제

#### Contents

- <Special Issue> ..... 2
- I. 한일경제동향 ..... 6
- II. 이달의 일본경제
  - 1. 경기·무역 동향 .... 9
  - 2. 경제정책 ..... 14
  - 3. 기업전략 ..... 17
  - 4. 산업기술 ..... 22
- III. KJCF&KJE News ..... 26
- IV. 이달의 추천자료 ..... 29
- V. 한일경제지표 ..... 30



## < Special Issue > 연결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일본의 과제\*

### □ 금융·재정에서 구조개혁으로

- 2019년 5월 1일 일본의 신연호 레이와(令和) 시대가 막을 엮. 헤이세이 시대는 버블붕괴와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져 정권교체까지 발생하는 등, 정치·경제의 혼미가 계속되었음
-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발족으로 6년 이상 경기의 선순환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세계경제의 감속우려가 강하고 정책효과는 한계론도 등장하고 있음.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로 이어지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아베노믹스 또한 분수령에 있음
- 아베노믹스가 일정한 성과를 올렸음은 틀림이 없음
-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여 닛케이 주가지수가 정권 발족 후 약 2배로 상승. 2017년도 법인통계에 의하면, 금융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경상이익, 설비투자, 내부유보에 상당하는 이익잉여금은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
- 한편 성과가 부족한 지표도 있음. 2013~2017년도의 GDP 성장률은 평균 1.2%에 불과, 중장기 성장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도 1%정도로 한계점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사회보장에 대한 장래불안을 배경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현재 1% 미만의 증가율에 그쳐, 2%의 물가상승 목표라고 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음
- 또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중국경제가 감속, 그 영향을 받아 일본기업의 실적도 하향 수정이 잇따르고 있음. 2019년 10월에는 소비세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
- 레이와 원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재성장의 전기가 될 것인가는 과도하게 의존했던 금융·재정정책에서 구조개혁으로 중심축을 옮겨, 차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베노믹스로의 수정여부에 달려있음

### □ 성장전략·사회보장제도 개혁

- 헤이세이 시대의 일본 재정을 들여다보면, 건전화를 시도했으나 좌절을 반복한 3년이었음

\* 본 내용은 일본 일간공업신문사가 2019/4/29-5/8일에 거쳐 연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시사점을 추가한 것임

- 1997년에 통과된 재정구조개혁법, 2002년 신규국채발행 상한 규제, 2006년 세입·세출 일체개혁 등은 그 어느 것도 기능하지 않고,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세출증가압력에 직면했음
- 재정구조개혁법은 특례공채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아시아 통화위기 및 일본금융기관의 파탄이 잇따른 점도 있어 통과된 다음 해인 1998년에 동결됨
- 이후 재정건전화 목표 중앙정부-지방을 합친 PB(기초적재정수지)의 흑자화로 목표를 전환했으나 이 목표도 실현될 전망이 없음
- 2015년 6월 기본방침에서는 2020년도의 PB 흑자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재정 일체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음
- 그러나 2016~2018년도의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여 개혁을 시도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그렇다할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재정건전화에는 달군 돌에 물 뿌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음
- 본래는 국제상황으로 충당할 세수증가의 거의 절반이 교육비부담의 경감·양육층에 대한 지원·간병인력 확보 등의 시책에 충당됨. 결과적으로 건전화목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왔던 아베노믹스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됨
- 현재 일본경제는 미중대립 등을 배경으로 장래에 대한 불투명감이 떠돌고, 자민당 내에서 소비세인상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PB의 흑자화목표도 현재는 2025년도로 보류됨
- 재정건전화는 즉효약은 없음.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성장전략 추진과 세입·세출 개혁은 물론, 고용 및 임금의 안정화에 의한 세금·사회보험료의 부담 여력 향상, 중소기업의 수익향상도 도모하여 건전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임

□ 금융완화의 공적

-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일본은행총재는 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의 양을 2배로 하고, 2년 내에 2%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하는 소위 이(異)차원적 완화를 시작했음

- 그러나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고, 2016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 민간금융기관들은 일본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늘려, 설비투자가 촉진되어 몰가나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었음
- 마이너스 금리정책 이후 은행대출 잔고는 잠재성장률을 넘어 견실하게 추이했음
- 그러나 현저하게 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체에 대한 대출과 주택론이었음
- 이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음
- 마이너스 금리의 병폐도 두드러지고 있음
- 지방은행과 제 2지방은행은 예대업무의 금리마진이나 축소가 불가피해져 경영상황이 악화됨
-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막을 내릴 것인가? 일본은행은 2018년 7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중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을 장단금리조작(yield curve control)\* 실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종래의 수준에서 줄였음
- 그러나 구미의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 환율은 엔고방향으로 작용함. 일본은행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그렇게 되는 경우, 일본 민간금융기관에 큰 타격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서는 어려운 판단에 직면해있음

□ 기술혁신에 박차

-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 신흥국들과의 가격경쟁에 휘말려, 강점인 기술력도 쇠퇴하기 시작함
-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반도체나 액정 등 장기인 기술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음
- 과잉품질이나 성능에 집착한 일본기업들은 기술력에서 추월당하고 있음. 연구개발비는 일본 전체로 담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2009년 일본을 제치고 2016년에는 10년 전에 비하여 약 4배로 확대

\* 2016년 9월에 일본은행이 새로 도입한 정책.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단기금리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더하여 10년물국채의 금리가 대략 0% 정도로 추이하도록 매입함으로써 단기부터 장기까지 금리 전체의 움직임을 통제.

-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고 있음
-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업의 신진대사가 진전되지 않고, 개업률은 선진국의 절반에 머물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
- 일본에도 전향적인 움직임은 있음
  - 일본정부는 2018년 여름 유망한 스타트업 92개사를 선정, 우선적인 지원을 개시했음
  - 대기업이 중심인 일본 경단련에 스타트업이 가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쌍방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기대되고 있음

#### □ 고령화와 격차사회

- 헤이세이 시대,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는 전 세계에 격차에 의한 사회적 분단을 낳았음
  -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도 비정규사원의 급증에 의한 중간소득층의 기반침해를 가져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사원과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격차도 확대되었음. 1억 총활약 사회가 붕괴된 시대이기도 함
- 고도 성장기를 지탱했던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2025년에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되고, 그 자식들인 세대의 단카이 주니어도 2015년에 65세 이상의 전기고령자가 됨
  - 인구감소는 최대의 디플레이션 요인. 고령화는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19년도 예산에서 사회보장비는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3.2% 증가한 34조 587억엔으로 과거 최대치를 경신함
  - 대도시권에서는 고령자가 급증, 지방에서는 고령화와 과소화가 동시진행.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OECD는 2019년 4월에 발표한 對일경제심사보고서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의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20-26%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최저임금을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1,100엔 수준과 유사한 1,000엔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3% 정도 인상할 방침을 명기함

- 과거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맞는 레이와의 일본은 정책, 제도, 경영전략의 근본부터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 시사점

- 레이와는 한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상에서 적시한 과제들은 30년에 걸친 헤이세이 시대에 노정된 것들로 일본이 극복해야할 경제적 과제들임
- 그러나 헤이세이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과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일관계라고 할 수 있음
- 레이와는 영어로 beautiful harmony로 번역되고 있음.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임. 한 일관계에도 아주 오랫동안 점철되어왔던 갈등과 부조화의 시대가 끝나고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함

### I. 한일 경제 동향

#### □ 對日무역구조

-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
- 한국의 對日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 부품,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
  - 對日무역흑자를 한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
  -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통상정책의 핵심임

○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1%,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2%로 2000년의 각각 11.9% 및 19.8%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수준임

- 한편, 2018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도 4.2%로 2000년의 5.4%에 비하여 낮아진 수준임

□ '19.4월 중 對日 무역

○ '19. 4월 對日 무역적자는 2,291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이 확대

- 對日 수출에 비하여 對日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 對日 수출은 2,279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0.5%의 증가로 반전됨

- 10대 對日 수출품목 중, 유가상승의 영향을 받은 광물성연료와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對日 수출이 감소

- 따라서 이들 제품의 對日 수출증가율이 각각 58.7% 및 23.3%로 전체 對日 수출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 對日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對日 수출감소폭이 -27.1%로 가장 컸음

○ 對日 수입은 4,570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6.1% 증가, 증가폭은 전월보다 적음

- 10대 對日 수입 품목으로 모두 대일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수송기계의 對日 수입 증가폭이 22.3%로 가장 큼

- 對日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기계의 대일수출감소폭이 -20.0%로 가장 컸음

< 2019년 4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백만 달러,%) >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對日 수출	2,267	-12.9	-0.6	2,279	-8.2	0.5	9,442	-6.7
對日 수입	4,311	-17.5	13.5	4,570	-7.5	6.1	16,733	-12.7
무역수지	-2,044	-22.0	34.7	-2,291	-6.7	12.1	-7,291	-19.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일본인 직접투자

○ 일본 측의 국제수지기준으로 본 '19. 3월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07억 엔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로 반전

- '19.3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접하는 對韓 직접투자 비율은 전월의 1.0%에서 0.5%로 낮아짐

<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

		2017	2018	2018 4분기	2019 1분기	19.2월	19.3월
신 고 기 준	對韓 일본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	1,862 (90.1)	1,301 (-30.1)	333 (246.9)	254 (-23.7)	-	-
	전체 對韓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	22,970 (7.8)	26,901 (17.1)	7,698 (123.2)	3,174 (-58.8)	-	-
국제수지 기준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억 엔, %)	4,112 (18.8)	6,653 (61.8)	1,355 (-58.5)	-	311 (27.5)	307 (-1.3)
	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억 엔, %)	559,108 (-18.0)	643,235 (15.0)	150,244 (7.0)	-	32,733 (-68.4)	60,834 (84.5)

주 :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재무성

□ 인적교류

○ '19.4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 전월대비 22.7% 감소

- '19.4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90,092명으로 전월대비로는 22.7% 감소로 반전했으나 전년동월비로는 35.7% 증가

○ '19.4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전월대비 3.2% 감소

- '19.4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566,600명으로 전월보다 3.2% 감소, 전년동기대비로도 11.3% 감소

-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악화, 방일여행상품가격의 상승, 일본내 관광지의 혼잡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

## II. 이달의 일본경제

### 1. 경기·무역 동향

#### □ '19.1분기, 수입 감소에 의한 불안한 플러스 성장

-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강한 가운데, 2019년 1~3월기 일본의 GDP는 연율 2.1%로 예상지 못했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함
- 실질GDP의 내역은 내수가 0.1%분의 플러스, 외수의 기여도는 0.4%분의 플러스였음
-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외수 중 수입의 급감이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내수에서는 주택투자와 공공투자의 증가가 플러스성장에 기여함
  - 항목별로 보면 주택투자가 1.1% 증가로, 3분기 만에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한편, 공공투자도 1.5%의 증가를 보임
  -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0.3% 감소, GDP의 50%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도 0.1% 감소함
  - 설비투자는 미중무역마찰 등에 의한 중국경제의 감속우려로, 전기기계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유보하는 움직임이 보임
  - 소비는 난동의 영향으로 의류판매가 부진을 보이고, 식품의 가격인상 영향으로 소비마인드가 위축됨
  - 수출은 2.4% 감소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감속이 영향을 미침
  - 수입은 내수의 약세를 반영하여 4.6% 감소함. 수입의 감소폭은 수출의 감소폭을 상회했기 때문에 GDP에는 플러스로 기여함
- 문제는 수입의 급감이 일본경제의 정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일본 내각부는 수입 감소의 이유를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이 감소로 설명함
  -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둔해지면 에너지 관련 수요도 부진함. 일본재무성 무역통계에 의하면 2019년 1~3월기는 원유 등 연료 외에도 화학제품과 기계,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도 줄고 있음

- 일본경제신문(2019/5/21)은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를 인용, 국내 수요동향을 반영하는 수입이 심각하게 줄고 있는 점을 들어, 1~3월기가 예상을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고 해서, 경기둔화의 불안이 불식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도하고 있음
  - 내수의 보폭이 줄어들면 미중무역마찰로 외수가 한층 냉각된 사태에 대한 내구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임
- 시장의 사전예측과 크게 괴리가 발생한 1~3월기 GDP의 고성장은 장래 일본경제에 찾아올 변조를 보다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음

#### □ 3월 경기동향지수, 6년 2개월 만에 악화로

- 일본 내각부가 3월의 경기동향지수로 본 경기기조판단을 6년 2개월 만에 악화로 했는데, 외수의 침체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한 것이 배경임
  -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후퇴를 인정한 것은 아니나 경기동향지수의 정의상 후퇴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
  - 미중무역마찰이 한층 격화되면 경기가 더욱 하강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정부·여당은 경제대책도 시야에 넣고 있음
- 경기동향지수 중 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는 99.6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함
  - 1~2월의 “하방으로의 국면변화” 에서 악화로 한 단계 내림
  - 경기동향지수로 사용되는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투자재출하 지수가 전월대비 2.3% 저하로 최대하락폭을 보임
-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월 예정된 소비세인상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2008년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인상할 방침임을 강조했음
- 한편, 3월 경기지수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5월 월례보고에서는 수출이나 생산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함
  - 월례경제보고에서는 경기지수가 악화되더라도 고용 및 소득환경이 개선되어 경기회복의 전향적인 움직임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복으로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
- '19.3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2.1% 감소
  - 교통관련 소비와 통신비가 증가한 외에 소매업 판매액도 1.0% 증가



- '19.3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기계수주액은 대형 건설기계 수주의 호조로 전월대비 3.8% 증가
  - 제조업은 전월대비 11.4% 감소한 반면, 비제조업은 13.4% 증가
  - 「일본은행 단관(短観) 2019년 3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계획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은 설비판단은 부족감을 보이고 있음
  - 앞으로 기업수익의 개선 및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증가가 계속될 전망
- '19.3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9% 감소, 전년동월대비 4.3% 감소
  - 자동차와 반도체의 생산이 감소됨
- '19.3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2% 악화된 2.5%
  - 완전실업자수는 174만명으로 전월보다 14만명 감소한 가운데, 자발적인 이직 증가가 실업률 상승에 기여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63배를 유지,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채용의욕이 강함을 반영
  -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
- '19.4월의 수출수량은 전월대비 6.6% 감소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수량이 전월대비 6.2% 감소
  - 앞으로 당분간은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의 동향과 중국경제의 감속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19.3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전월비로는 0.1% 상승
  - 외식비와 전기료가 상승
  -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 무역수지 3개월 연속 흑자

- '19.4월 무역수지(통관기준)는 604억 엔 흑자로 전월대비 80.0% 증가
  - 최대 적자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1,927억엔 적자에서 3,187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835억엔에서 7,232억 엔으로 흑자폭이 확대
  - 무역수지 흑자는 3개월 연속으로, 수출 감소폭에 비하여 수입 감소폭이 적었던 데 따른 것임
- '19.4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12.5% 감소한 6조 6,588억엔
  - 이는 수출수량 감소폭 -6.2%보다 큰 것으로 수출수량 감소효과에 수출금액 감소효과가 가세한 결과임
  -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 감소폭이 12.5%로 가장 큼(지표 4)
  -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만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4.9%로 가장 큼(지표 5)
  -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을 반영하여 전년동월대비 기준 '19.3월의 9.4%에 이어 '19.4월에도 6.3%의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7.6% 감소
- '19.4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5% 감소한 6조 5,983억 엔
  - 이는 수입수량 감소폭 1.1%보다 큰 것으로 수입수량 감소효과에 수입금액 감소효과가 가세한 결과임
  -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고, 원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29.6%로 가장 큼(지표 6)
  - 원유의 수입증가는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임
  - 주요 국가지역별 수입은 모두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14.9%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4.7% 감소(지표 7)

< 2019년 4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수출	7.2	-2.4	12.5	6.7	-2.4	-7.0	25.9	-3.4
수입	6.7	1.1	9.8	6.6	6.4	-1.5	19.1	-27.4
수지	0.5	-32.6	66.7	0.1	-90.3	80.0	6.6	-83.5

자료 : 재무성

- ‘19.4월의 엔화환율(대미달러)은 111.7엔으로 전월대비 0.5% 엔저
- ‘19년 5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마찰 격화로 엔고세로 반전, 5월 10일 이후에는 109엔대 중반까지 엔고가 진전
-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022엔으로 전월대비 0.5% 원저(엔고)
- ‘19.3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의 급감 반작용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84.8% 증가한 6조 834억엔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016년 이후 M&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M&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대외M&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①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A의 증가, ②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 ③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A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1.3% 감소한 307억엔
- ‘19.3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6.4% 증가한 2조 8,479억엔, 전년동월대비로는 25% 증가
- 여행수지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수입이 증가한 외에 무역수지흑자 확대도 경상수지흑자 확대에 기여

2. 경제정책

□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고용개혁을 축으로 생산성 향상에 중점

- 일본정부는 5월 15일 아베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은 ‘미래투자회의’에서 올 여름에 완성할 성장전략의 골격을 제시했음
-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70세까지의 취업 외에, 겸업 및 부업 등이 부담 없이 가능한 환경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지방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둬. 종래의 고용관행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재검토하고 생산성향상을 서두를 계획임
- 일본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매년 여름에 미래투자전략회의를 발표해왔음
- 사무국인 내각관방은 15일 회의에서 구미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일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우선과제라고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개혁이 필요하고 금년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
- 구체적인 정책은 겸업 및 부업의 촉진
- 내각관방은 민간의 조사 등을 기초로, 겸업과 부업의 경험이 본업의 효율성과 의욕을 향상시키고,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 등 사고력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증가로 이어지고 창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 부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많음. 일본 총무성의 취업구조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각관방의 조사에서는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017년까지 20년간 20% 감소한 반면,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30% 증가함
- 일본정부는 특히 일손부족이 심각한 지방기업에서 수도권의 인력이 겸업 및 부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으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이나 인력소개회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계획임
- 또 겸업과 부업에 따른 기업비밀 등의 정보관리, 노동시간관리 등의 과제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음
- 고용개혁 이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의 활성화
- 우선은 지방의 사업이나 생활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방은행끼리, 합승버스회사끼리의 경영통합을 촉진하는 것도 성장전략에 포함시킴

-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나 고령화,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금리정책의 장기화로 지방은행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합승버스도 70%의 사업자가 적자에 빠져있어, 수익이 낮아지고 있는 과소지 노선의 유지가 과제임
- 이에 일본정부는 지방은행, 버스회사 등이 경영통합이나 사업의 공동화를 하는 경우, 독점금지법의 적용 예외로 인정하여, 경영효율화를 지원키로 함
- 이 외에, 디지털시장의 틀 정비, 핀테크 등의 기술혁신 촉진도 성장전략에 포함시킴
- 이번 회의에 앞서, 자민당의 경제성장전략본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활용에 중점을 둔 성장전략을 완성했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 정책을 검토할 예정임
-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성장전략을 발표한 것은 금년으로 7번째임
- 그러나 이제까지의 성장전략은 성장력을 올리는 근본책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정도에 그쳤음. 올해도 여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피한 사소한 내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은 많음
- 고용개혁도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 등 과제가 많아, 성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함

< 시사점 >

- 일본은 2018년 7월 노동방식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9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됨
-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대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문화를 유도하고,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임
- 이번 정책에서 주목되는 점은 겸업과 부업의 경험이 본업의 효율성과 의욕을 향상시키고,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 등 사고력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증가로 이어지고 창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임
- 이는 학습효과와 일종으로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일본보다도 뒤쳐져 있고,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만큼 노동개혁 내용의 다양화와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물가상승전망 처음으로 목표치를 하회하는 1.6%로 제시

- 일본은행이 4월 25일까지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신 경기예측인 「경제·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함
-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 제외)의 2021년도 상승률전망을 전년도비 1.6%로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하회하는 수준임
- 구로다 총재가 회견에서 2021년도 달성은 어렵고, 2012년 이후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6년 경과해도 아직 달성하지 못하여 유감이라고 슬회함
- 구로다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2%에 이르지 못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함
- 기업의 신중한 임금·물가설정의 스탠스가 명확히 전환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기술혁신도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미리 장래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드(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하는 것도 결정함
- 세계경제 동향이나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2020년 봄경까지 현재의 매우 낮은 장단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명기함
- 이제까지는 당면이라고 하고 있었으나, 구로다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
- 나아가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로서, 주가지수연동형 상장투자신탁(ETF)의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시킴
- 한편 금융완화책은 현상유지를 결정함
-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조작하는 금융시장 조정을 계속하기로 했음
-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국경제의 감속이나 미중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투명감 등으로 금융완화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융정책수단에는 한계도 보이고, 나아가 장기금융완화에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 일본은행이 4월 17일 발표한 시스템리포트에서는 차입자금수요가 감소하여, 10년 후 2028년도에는 약 60%의 지방은행이 최종적자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제시함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의 정체 등 구조적인 요인이 크나, 장기금융완화에 의한 금리마진 축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사점 >

-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2%에서 1.6%로 하향 수정한 것은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후 2013년부터 6년 이상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의 제1탄인 이(異)차원적 금융완화정책이 서서히 출구를 찾고 있음을 시사함
- 비록 일본경제가 당초에 그린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통한 수요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구조가 정착된 것은 아니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판단대로 현 상황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면 부작용이 따른 마이너스 금리 등 금융완화정책에 종언을 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기업전략

□ 히타치제작소, 脫제조업 결단(일본경제신문 2019/4/26)

(히타치제작소 홈페이지 <https://www.hitachi.co.jp/>)

- 히타치제작소가 그룹의 핵심으로서 히타치금속과 함께 Big3로 불려왔던 히타치가세이(化成)의 매각에 나섬
- 1910년 창업 이래, 일본 제조업을 대표해왔던 히타치는 모노즈쿠리의 기초인 소재를 담당해온 히타치가세이의 매각으로 경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감
- 히타치는 모노즈쿠리로부터 디지털로, 스스로 제조업의 틀을 박차고 디지털경제에서의 주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바라기현 히타치시에 있는 히타치사업소의 창업자인 오다이라 나미헤이(小平 浪平) 씨의 기념판에는 창업자 만든 5마력의 전동기가 보관되어 있음
- 이것이 바로 종업원 약 30만명을 안고, 가전에서 원전, IT까지 관여한 히타치라는 대그룹 최초의 제품임

- 소형모터에서 시작했던 창업기의 히타치가 필요로 하여, 연마해왔던 기술이 사업화되고, 전후 분사되어 탄생한 것이 히타치가이세이를 포함한 3두마차임
- 히타치는 히타치가세이의 매각으로 메이커로서의 원류를 끊어내는 결단을 내림
- 동사 히가시하라 도시아키(東原 敏昭) 사장은 디지털문화의 파도 속에서 제조업은 없어진다고 단언하고 있음
- 동사는 종래의 대량생산방식의 제조업에서 탈피하고, 모든 상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등 데이터를 모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목표로 앞으로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디지털화로의 대응으로 과감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히타치만은 아니며 일본 제조업 전반의 과제임
- 히타치는 제조업을 대표하여 시대의 파도를 그 경영에 반영시켜 왔음
- 히타치는 1960년대 터빈을 미국에 수출, 컬러 TV도 개발한데 이어, 1970년대에는 신칸센의 관리시스템에 참여, 종합전기메이커로서 고도경제성장기에 약진하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해왔음
-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가진 대형 컴퓨터를 개발, IT분야에서도 선행
- 버블 붕괴 후 1990년대에는 경영의 흐름에 이상기류가 발생함
- 소비재 분야가 중심이었던 가전의 저가격화가 진행되고, 투자를 집중시킨 반도체, 컴퓨터 분야의 범용화도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1999년 3월기에 적자로 전략함
- 2000년대에 들어 사업부문의 재편성 등으로 경영을 일으켰으나 많은 일본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은 일진일퇴를 거듭했음
- 이 같은 경영에 타격을 입힌 것이 2008년 리먼 쇼크임. 2009년 3월기에는 당시 제조업에서는 과거 최대인 7,873억엔의 최종적자에 빠짐
- 2009년에는 신입 사장이 가와무라 다카시(川村 隆) 씨가 그룹의 선택과 집중에 주력함
- 가와무라 사장의 후임인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 宏明) 그룹 회장 겸 일본 경단련 회장도 2011년 미국 HDD사업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사업정리를 추진, 수익을 회복했음

- 그러나 당시 경영진도 3두마차를 매각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음
  - 2013년에는 Big3의 일각에서 사업부진을 계속했던 히타치전선을 히타치금속에 귀속시킴
  - 이번 히타치가이세이를 매각하는 결단에 도움이 된 것은 포스트제조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력이 없는 그룹기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강한 위기감이었음
- 그러한 히타치가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고 도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 이번 디지털기업으로의 변신임
  - 관계자에 의하면 히타치 경영진은 당초 주력 기업인 히타치가이세이를 배려하여, 파트너기업의 선정을 맡기겠다고 해왔으나, 생각대로 진전되지 않은 교섭의 영향으로 입찰방식으로 전환했음
  - 디지털화로 수익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은 멀리하고, 2020년 3월기부터 시작하는 중기경영계획에서는 이 방식에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
- 다만 디지털화를 일찍 추진한 미국 GE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히타치가 GE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재편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임

#### < 시사점 >

- 여기서 脫제조업화는 바꾸어 말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임. 앞으로 산업기술 패러다임의 대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연결성에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본이 강점으로 해왔던 모노즈쿠리와 이를 지탱하는 장인정신만으로 부족함. 산업 전반에 디지털이 적용되고 연결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임
- 일본은 최근 Io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센서 기술 등에 대한 전방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히타치도 이러한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脫제조업화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가일층의 재편과 시행착오가 뒤따를지 모름

#### □ 무인물류의 달인, DAIFUKU(다이후쿠)(일본경제신문 2019/5/17)

(DAIFUKU 홈페이지 <https://www.daifuku.com/jp/>)

- 일손부족이 진행될수록 존재감을 높이는 기업이 있음
  - 무인물류의 시스템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낸 다이후쿠, 2019년 3월기 매출액은 4,594억엔으로 5년 전에 비하여 2배 성장, 시가총액도 동 기간 중 5배로 됨
- 캐나다 몬트리얼 공항의 지하도를 전용트레이에 태운 가방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감. 터미널사이를 잇는 반송컨베이어의 속도는 최고 분속 600미터에 이름
  - 다이후쿠는 세계 최고속 수하물반송시스템을 타사에 앞서 개발, 납품했음
- 물류시스템의 자동화설비의 매출액에서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을 누르고 세계 수위.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유통창고나 공항 등에도 전개. 무인물류의 견인차로서, 급속히 존재감을 높이고 있음
- 동사의 강점은 모든 자동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점임
  - 컨베이어나 무인반송차, 파렛트 자동창고 등 개별 기기에 강점을 가진 업체들은 많음. 다이후쿠는 대내외적으로 10건 이상의 M&A를 반복, 먼저 상품진열 경험에 나섰음
- 동사는 지금은 부품생산에서 설계, 조립이나 AS까지 물류시스템 전체에 관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기를 내부에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납득하기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동사 사장은 자신감을 비치고 있음
  - 그 지주역할을 하는 것이 단체 종업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 800명의 설계·개발 엔지니어들임. 운반하는 대상이 자동차부품인지 과일인지에 따라 최적의 운반수단은 바뀜
  - 고객의 요망에 부응하여 다양한 장치를 연동시켜, 인간이 관여하는 장면을 가능한 한 생략함. 현장의 니즈를 유연하게 청취, 신속하게 시스템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임
- 다이후쿠의 창업은 1937년. 비약의 계기는 도요타 그룹에 납품한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임

- 트러블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도요타 공장 근처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엔지니어 수십 명을 상주시켜, 납품한 시스템이 무사히 가동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음
- 생산현장을 숙지한 고객의 기술자와 의논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갱신 니즈를 일찍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 동사는 엔지니어가 현장에 붙어있어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감을 얻음으로써, 이익률이 높은 유지도 받고 있음
- 또한 동사는 자동차 각사의 해외진출에 따라 세계에 거점을 전개하고 있음. 반도체 및 액정 공장용 물류시스템 등에 사업의 폭을 확대해 왔음
- 새로운 사업의 기동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공항임
  - 옥내 반송라인이나 수하물의 장소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3차원 맵에 더하여, 타 업종에서 쌓은 노하우를 전용할 수 있는 것이 독자적인 강점임
- 매수기업의 실적을 포함하면, 이미 세계 500개 이상의 공항시스템을 납품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견인하여 세계의 항공 여객수는 2037년에 82억명으로 현재보다 2배 증가할 전망이다. 공항분야에서의 다이후쿠의 점유율은 세계 4위로 보여, 성장의 여지는 남아있음
- 전자상거래의 보급으로 화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통업용 자동창고시스템도 유행한 분야임
- 2018년에는 유니클로 브랜드의 퍼스트리테일링과 제휴. 1,000억엔 규모를 투입하여 중국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의 창고를 자동화할 계획임
  - 퍼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柳井 正) 사장은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이후쿠 밖에 없다” 고 전면적으로 신뢰하고 있음
- 일손부족은 아시아에도 확대되고 있어, 자동화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다이후쿠는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여 제품라인업을 늘리고, 시스템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음
-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임

#### < 시사점 >

- 다이후쿠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생산현장을 숙지한 고객의 기술자와 의논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갱신니즈를 일찍 파악한 점임
- 새로운 사업의 기동으로 공항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것도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임
- 앞으로 5G 기술이 적용되면 무인물류사업은 일손부족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배송시간 단축 등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제까지 다이후쿠가 미래를 예상하여 제품라인업을 늘리고, 시스템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듯이 5G시대에 대비해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4. 산업기술

### □ 일본의 에너지 전환과 脫탄소화를 위한 수소활용(METI Journal 2019/5/14, 세코우 히로시게(世耕 弘成) 경제산업대신 인터뷰 내용)

- 에너지 전환과 脫탄소를 진정으로 추진해나가는 의미에서는 지금의 이노베이션 연속은 아니고 한 차원 높은 즉, 비연속적인 이노베이션이 필요함
- 기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규범인 파리협정에 관한 장기 전략의 유식자간담회에서는 수소를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앞으로 책정하는 정부의 장기 전략에서는 수소의 비용을 2050년까지 현재의 1/10 이하, 즉 천연가스보다도 저렴하게 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음
- 수소에 관해서는 일본은 제조에서 저장 수송, 활용까지 일관하여 기술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이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수소개발회의를 개최하고 도쿄선언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함
- 도쿄선언의 실현을 위한 대응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9월에는 제2차 수소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G20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의 장에서도 에너지전환·脫탄소화의 핵심기술인 수소의 중요성,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각국과 논의할 예정임
-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소는 일본만이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으나 일본이 계속 강조해옴으로써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
-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회의)에서도 수소에 대한 주목도는 매우 높음. 그만큼 수소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고, 일본이 선도 역할로서 인지되고 있음
- G20은 큰 기회로서 세계 각국을 둘러싼 움직임을 만들어낼 계획임
- 또 화석연료를 산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큰 기회이며, G20에는 에너지산출국이 다수 참가하기 때문에 수소에 관한 논의의 의의는 매우 큼
- 일본은 2019년 3월 연료전지차(FCV)의 대폭적인 가격인하 등 수소이용에 관한 목표를 담은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을 개정,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했음
- 로드맵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완성토록 지시, 완전한 메시지를 완성시켰는가 하면, 2019년도 수소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1.5배 정도로 증액시켰음
- 나아가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카본리사이클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발표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CO2 삭감에 관해서는 발생원을 억제한다고 하는 접근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이로부터 개도국들도 점점 에너지로 접근함에 따라, 발생원을 억제하는 예상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음
- 이 점에 관해서도 비연속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며, 발생한 CO2를 회수 및 저장, 활용하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제까지는 CO2를 나쁜 것으로 보고, 발생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CO2를 공급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발상을 전환하여 카본리사이클 기술을 중시한 로드맵을 책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CO2와 수소를 원료로 하여 태양광에너지로 플라스틱원료 등을 만드는 촉매기술이나 수소에 CO2를 공급하여 바이오연료로 바꾸는 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음
-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제품이 CO2를 삭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기술개발의 일정도 포함하여 제시할 계획임
- 아직 사업타당성 단계이기도 하나, 삭감 잠재력이나 비용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에너지·환경상 회의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각국과 공유할 계획임

#### < 시사점 >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의 미래는 꿈의 원료 수소에너지라고 할 만큼 지구의 환경파괴와 사고위험, 화석원료의 고갈대비를 위해 수소원료 개발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음
- 각 지방정부가 수소자동차의 도입 등 수소사회에 대한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임
- 현재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수소산업 내 일부 부문의 기술력뿐이며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이용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 등 해결과제가 많음
- 우리 정부로서도 금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의 「에너지환경각료회의」, 9월 예정인 「수소각료회의」의 장에서도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 □ 정밀기술의 신개발, 중소기업에서 잇따라(일간공업신문 2019/5/8)

- 중소기업에 의한 새로운 제조기술 개발이 잇따르고 있어 정밀부품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이리소정밀(본사: 사이타마현, <http://www.iriso-seimitsu.co.jp/home.html>)은 절삭에 의한 금속가공 분야에서 세계 최소급인 기어 제조기술을 확립했음
- 일반적인 머시닝센터(MC)에 특수한 보조 장치를 부가함으로써, 소재인 놋쇠에서 직경 1.22mm, 톱니 수 44개의 기어를 제조함
- 이로 인해 의료기기, 로봇, 정밀 모터 등에 사용하는 초미세부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
- 미세한 가공대상물(워크)을 고정하거나 이동시키는 특수 보조 장치를 MC에 장착. 주축인 3개인 워크를 자동적으로 바꿔 쥐면서 6개의 면을 공구로 절삭, 기어로 마무리해나감
- 가공시간은 약 50분, 조만간 40분 이하로 가능할 전망이다. 정밀도는 ±0.002mm. 이미 실험수준에서는 직경 0.8mm의 기어제조에 성공. 조만간 0.3mm로 톱니 수 2개의 기어 제조에 도전할 계획임
- 이제까지 초미세부품은 사출성형 등에서 밖에 만들 수 없었으나,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움
- 절삭가공이라면 기어의 두께나 톱니 수를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다품종 제조에 최적이라고 동사 사장은 강조함. 우선은 연구개발이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
- 오사카야금공업(본사: 오사카시, <https://www.osakayakin.co.jp/>)은 티탄알미늄합금의 금속분말 사출성형(MIM) 기술을 확립했음
- 동 합금은 항공기용 엔진의 저압 터빈 블레이드 및 의료기기 등 정밀부품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 MIM기술에 의해, 이들 정밀부품의 저비용제법을 확립할 수 있다면, 티탄알미늄합금의 용도를 크게 넓힐 가능성이 높음
- 동사는 일본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프로그램(SIP) 참가, 미쓰비시중공의 항공엔진 및 고베제강소, 도쿄공업대학, 오사카대학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개발
- 티탄알미늄합금은 가볍고 강도 및 내열성 면에서 뛰어나, 항공엔진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가공이 어렵고, 제조비용도 높음. 그러나 MIM 기술을 사용하면 저비용 제조로 이어질 공산이

- SIP 프로그램에서는 MIM 기술을 사용한 저압 터빈 블레이드를 실험적으로 제작, 2022년도에 강도성립성을 확인할 예정임
- 오사카야금공업은 금속의 열 가공에 관여하고 있음. 2000년에 티탄알미늄합금인 MIM기술에 관한 논문을 발표. MIM 등에 사용하는 금속분말인 Gas Atomizer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재료의 개발에서 금속가공까지 일관체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초정밀기술은 어떠한 가공하기 어려운 재료들도 초정밀, 초미세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IT, BT 산업의 첨단부품을 고부가가치로 생산할 수가 있음
- 상기 이리소정밀 및 오사카야금공업 외에도 도쿄의 오오타구, 히가시오사카 지역에는 이러한 정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일본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해왔음
- 이러한 초정밀기술은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과 수입 대체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최우선 외국인투자유치대상 업체라고 할 수 있음

III. KJCF & KJE News

□ 한일재단 &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행사 결과

<p><b>2019년도 모노즈쿠리 인재 양성 과정</b></p> <p>일시 : (국내) 2019년 5월 13-15일 / 2박 3일 (일본) 2019년 5월 15-18일 / 3박 4일</p> <p>장소 : (국내) 경기도 시흥시 (일본) 나고야시</p> <p>참가 :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 25명</p>	
--	---



□ 한일재단 &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

2019년 8월 [서울 영등포 개회]

# 제2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日韓高校生交流キャンプ

이웃나라 일본의 고교생과 함께 비즈니스 체험을 통해 나누는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한일 혼성 6개 팀으로 나누어 문화와 문해 활동을 하며 서로를 비즈니스로 겨룬다.
- 각 팀에는 비즈니스 교육자를 포함한 3-4명 한일 학생과 가능한 멘토 1명이 함께 한다.
- 실용경제학, 사정가 가치, 한일 문화의 차이, 비즈니스 게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한다.
- 자세한 정보는 멘토 리플렛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친구를 만드시 캠프에 참여해주세요!

일본에 관심이 있다 / 경제 · 경영 · 문화 분야에 관심이 있다 / 한일문화에 관심이 있다 /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싶다 /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 /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참가신청방법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홈페이지 www.kjc.or.kr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참여하기 ▶ 영문신청서 작성
- 각종 서류 작성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yklee@kjc.or.kr로 E-mail 발송
- ※ 제출 기한: 2019년 8월 5일(수) 오전 10시, 참가자 이름
- ※ POF(보증금) :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 / 참가자 이름
- ※ 신청 기간: 2019년 8월 13일(수) ~ 2019년 8월 7일(수) 오후 6시까지
- ※ 참가자비: 2019년 8월 14일(목) ~ 2019년 8월 20일(수) 오후 5시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재
- ※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시간/날짜	8월 9일(목)	8월 10일(금)	8월 11일(토)	8월 12일(일)	8월 13일(월)
07:00~08:00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08:00~09:00	일본학생 하네다공항집합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09:00~10: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0:00~11:00	한국 우수 상품경제체험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1:00~12:00	한국 우수 상품경제체험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2:00~13:00	일본학생 한국 하네다공항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3:00~14: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4:00~15:00	한국학생 행사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5:00~16:00	일본학생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6:00~17:00	일본학생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7:00~18:00	오리엔테이션(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8:00~19: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19:00~20: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20:00~21: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21:00~22:00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미동행(박스): 학생수업 - 체험장소
22:00~	휴일	휴일	휴일	휴일	휴일

www.kjc.or.kr

## 일본 선진 BCP협력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안내

~ 차세대 BCP로 위기관리 현장에서 경영혁신을 찾다 ~ (7.16(화)~19(금) / 일본 후쿠오카 / 중견·중소기업 경영자 15명)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 사업지속성계획) 기업들의 건강도로, 단순히 재해만이 아닌, 발흥 가능한 경영자원에 대한 다양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중요사업에 대한 정보, 경영사건, 경영실패로 회복시키는 경영관리

기업을 위한 BCP를 통한 핵심사업 지속 · 초기 회복

기업가치 유지 · 향상

● 당신의 기업은 유사시의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 당신의 기업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철저한 위기관리능력(BCP)으로 지속적인 기업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 선진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쟁 구축 도와드립니다

연수개요

- 일정: 2019. 7. 16(화) ~ 7. 19(금) / 3박 4일
- 장소: 일본 후쿠오카(熊本)
- 대상: 중견·중소 제조기업 경영자 15명
- 진행: 순서대로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주요 프로그램 구성

주요 일정

일시	내 용
08:45~10:15	일본 인연(인선공방) - 후쿠오카공항 / OZ132
7/16(화) 오후	- 오리엔테이션 - BCP 기업사례분석(소속(kongo)주식회사) - 제1차선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선진경영에서의 BCP구축사례 - 참가기업 교류간담회
오전	- 강화(후) BCP인기 - 강화(후) BCP구축 1. BCP구축방법 - 강화(후) BCP구축 2. BCP구축사례
7/17(수) 오후	- BCP 기업사례분석(소속(monista)공정유사회사) - 본래의 BCP구축에 대한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
오전	- 강화(후) BCP구축 3. 자사의 상황에 맞는 BCP구축방법 - 자사의 적용 가능한 BCP구축 사례, 실습
7/18(목) 오후	- BCP 기업사례분석(소속(water)주식회사) - 본래의 BCP구축에 대한 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 - 위기관리의 사례(후쿠오카) 공개발견사례
7/19(금) 오후	- 그램(후) BCP 계획안 발표 및 지도 - 수료식
14:50~16:20	- 귀국(후쿠오카공항) - 인천공항 / OZ133

### ● 왜 BCP가 필요한가?

BCP 도입 후의 위험감소

BCP 도입 전의 위험감소

BCP 도입 후의 위험감소

BCP 도입 후의 위험감소

1. 시드라인의 부기, 가제터의 도산, 자연재해 등 급격한 사업환경변화에 기업은 한순간에 파산, 도산, 사업중단 등 최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BCP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러한 환경하에서도 핵심사업의 유지 및 초기 복구를 통해 기업가치의 향상으로 지속적인 사업과 고성장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BCP구축은 유사시 대비뿐만 아니라 BCP구축 과정 자체가 기업혁신으로 BCP는 비용이 아닌 매출 확대의 경쟁력입니다.  
- 기업 혁신사업의 분석, 주요 사업, 비즈니스의 연속성 분석 등

### ● 기대효과

01. BCP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향상

02. BCP구축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03. BCP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04. BCP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

05. BCP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06. BCP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

07. BCP구축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 ● 벤치마킹 일본기업

- 소속(kongo)주식회사 (www.kongo-corp.co.jp)
- 소속(monista)공정유사회사 (www.monista.jp)
- 소속(water)주식회사 (www.wateryouken.co.jp)

오리엔테이션, 의사소통 관련 전문교육, BCP구축,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사회적 책임 실현

### ● 협력단 메리트

BCP 구축을 통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력 제고 - 자사의 핵심 역량 및 경영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기회 -

신선안내

- 참가비: 50만원(1사1명)
- 지원내용: 항공, 숙박, 통행, 현지차량 렌탈, 식사(현지식 개별), 강의료 등
- 신청기간: 2019. 5. 22(수) ~ 6. 14(금) \*신청서 제출 경우 조기 마감 예정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선택사항), 참가신청서)  
② 참가신청서 내 연속성계획서는 참가자 선정에서 사용됨(정확한 정보 기재 부탁드립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 신청방법: 자선 홈페이지(www.kjc.or.kr)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 e-mail(shiee@kjc.or.kr) 접수  
- 해당홈페이지 접속 -> 모집안내 -> 모집안내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문의: 경영/기술 협력 사업 / 02-3014-9802 / shiee@kjc.or.kr

#### IV. 이달의 추천자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이노베이션 지수와 일본기업들의 부진 이유』 2019-05-23
- 『일본 액정산업의 최대 보루, JDI의 소멸과 삼성전자의 비교』 2019-05-21
- 『모노즈쿠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벤처기업간 협력』 2019-05-17
- 『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29) 아크로나이넨(ACRO NAINEN)』 2019-04-18

□ 일본기관 연구보고서(일본어)

- 『전략적 기반기술 고도화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조사사업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19.5.22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92.pdf](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92.pdf)
- 『소재형기업의 가치제안형 전기를 위한 모델창출사업 최종보고서』 경제산업성, ‘19.5.22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90.pdf](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90.pdf)
- 『전자디바이스산업 및 관련산업의 시장동향과 정책동향조사』 경제산업성, ‘19.5.17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20.pdf](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30FY/000020.pdf)
-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 경제산업성, ‘19.5.17  
<https://www.meti.go.jp/press/2019/05/20190516002/20190516002.html>
- 『글로벌 성장전략 : 지방의 성장없이 일본의 성장 없음』 경제산업성, ‘19.5.16  
<https://www.meti.go.jp/press/2019/05/20190515003/20190515003-2.pdf>
- 『국내외 우주산업의 서플라이체인에 관한 동향조사』 경제산업성, ‘19.5.8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713.pdf](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H29FY/000713.pdf)
- 『2019년판 중소기업백서』 일본중소기업청, ‘19.4.27  
[https://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2019/PDF/2019\\_pdf\\_mokujityuu.htm](https://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2019/PDF/2019_pdf_mokujityuu.htm)

#### V. 한일경제지표

1) 2019년 4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총계	2,267	-12.9	-0.6	2,279	-8.2	0.5	9,442	-6.7
1	광물성연료	242	-31.6	-44.4	384	12.4	58.7	1,464	-11.0
2	철강제품	336	-1.9	-1.8	327	-4.8	-2.7	1,414	3.3
3	정밀화학제품	180	9.5	8.4	165	4.4	-8.3	701	9.5
4	석유화학제품	103	-44.5	-12.0	127	-39.9	23.3	504	-28.5
5	전자부품	130	-23.5	-4.4	126	-17.5	-3.1	540	-10.0
6	농산물	103	5.5	24.1	99	3.7	-3.9	388	6.2
7	산업용전자제품	129	-17.6	41.8	94	-2.4	-27.1	433	-16.4
8	수송기계	111	-2.8	9.9	93	-25.7	-16.3	419	-12.7
9	기계요소공구·금형	86	-5.2	3.6	80	-1.0	-7.0	350	0.4
10	금속광물	91	30.3	31.9	74	-19.2	-18.7	309	-9.1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9년 4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총계	4,311	-17.5	13.5	4,570	-7.5	6.1	16,733	-12.7
1	철강제품	535	-18.1	3.1	606	0.8	13.3	2,213	-5.2
2	전자부품	538	-10.9	19.6	528	0.7	-1.9	2,031	-7.3
3	정밀화학제품	387	-5.2	1.6	452	2.3	16.8	1,612	6.7
4	정밀기계	368	-57.8	15.0	419	-42.3	13.9	1,461	-51.5
5	석유화학제품	358	1.8	21.8	376	9.2	5.0	1,340	-5.2
6	수송기계	233	-19.9	1.7	285	17.3	22.3	993	6.3
7	산업용전자제품	265	-15.2	26.8	237	-17.4	-10.6	927	-15.1
8	기초산업기계	233	-14.8	22.0	210	-15.5	-9.9	800	-18.3
9	산업기계	248	20.8	55.0	198	1.0	-20.0	791	11.7
10	플라스틱제품	183	-6.7	7.6	198	-1.3	8.2	731	-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일본 주요경제지표

구분	2018	2018			2019				
		2/4	3/4	4/4	1/4	2월	3월	4월	
GDP증가율(실질, 연율,%)	0.7	2.2	-2.6	1.9	2.1p)	-	-	-	
경기동향지수(2010년100)	-	-	-	-	-	96.3	99.6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1.0	1.3	-1.3	1.9	-	1.4	-0.9	-	
실질소비증가율(전년비,%)	0.4	-1.4	-0.2	0.6	-	1.7	2.1	-	
기계수주액증가율(전기비,%)	3.6	2.2	0.9	-4.2	-	1.8	3.8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1.0	-0.1	0.3	0.2	-	0.1	0.1	-
		전년비	1.0	0.7	0.9	0.9	-	0.7	0.8
실업률(%)	2.4	2.4	2.4	2.4	-	2.3	2.5	-	
수출액(조엔)	81.5	20.2	20.1	21.1	19.2	6.4	7.2	6.7	
수입액(조엔)	82.7	19.4	20.7	22.5	19.8	6.1	6.7	6.6	
무역수지(조엔)	-1.2	0.8	-0.6	-1.3	-0.6	0.3	0.5	1.0	
경상수지(조엔)	19.0	4.9	5.6	2.6	-	2.7	2.8	-	
해외직접투자(조엔)*	64.2	14.6	13.7	15.0	-	3.3	6.1	-	
환율	달러	110.4	109.1	111.5	112.9	110.2	110.4	111.2	111.7
	원화(100엔)	996	989	1,007	999	1,021	1,016	1,017	1,022
금리(10년물,%)	0.071	0.089	0.098	0.076	0.023	-0.026	-0.044	-0.044	
주가(닛케이, 엔)	22,310	22,341	22,654	65,691	21,000	21,124	21,415	21,965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4) 2019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억 엔, %)

순위	품목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1	자동차	11,027	0.6	6.9	10,637	-0.7	-3.5	40,772	-1.2
2	자동차부품	3,374	-7.3	11.3	3,250	-4.1	-3.7	12,331	-5.1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200	-7.6	19.7	3,216	-5.7	0.5	12,073	-6.9
4	철강	2,746	-9.6	17.8	2,552	-2.5	-7.1	10,002	-10.0
5	원동기	2,754	-5.0	15.5	2,409	-3.5	-12.5	9,544	-1.6

자료: 일본 재무성

5) 2019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억 엔, %)

순위	국가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4,157	4.4	8.6	14,102	9.6	-0.4	52,684	5.7
2	중국	13,046	-9.4	14.5	12,329	-6.3	-5.5	46,353	-7.2
3	ASEAN	10,746	-5.7	14.8	10,175	0.4	-5.3	38,854	-4.6
4	EU	8,620	7.3	7.7	7,979	-2.6	-7.4	31,596	1.2
5	한국	4,988	-9.0	21.3	4,611	-4.2	-7.6	17,939	-9.6
6	대만	4,383	7.2	19.0	3,730	-2.7	-14.9	14,958	-1.2

자료: 일본 재무성

6) 2019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억 엔, %)

순위	품목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원유	6,820	-5.6	16.4	7,577	13.8	11.1	26,641	-3.1
2	액화천연가스	4,453	7.5	-4.3	3,135	5.8	-29.6	17,041	9.4
3	의류 등부속품	2,625	15.0	11.7	2,607	3.1	-0.7	10,461	2.3
4	석탄	2,338	9.0	11.5	2,304	5.9	-1.5	9,133	4.6
5	의약품	2,533	11.7	18.0	2,283	5.0	-9.9	9,820	1.0

자료: 일본 재무성

7) 2019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억 엔, %)

순위	국가	2019.3월			2019.4월			2019.1-4월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금액	증가율	전년 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4,973	10.9	17.8	15,516	5.9	3.6	61,576	1.6
2	ASEAN	10,137	-1.5	1.0	9,421	5.7	-7.1	39,705	-1.8
3	EU	8,178	-0.6	10.2	7,945	10.6	-2.8	31,497	1.6
4	미국	7,322	-0.2	8.0	6,870	2.3	-6.2	28,694	5.7
5	호주	4,757	22.3	21.2	4,065	5.1	-14.9	17,428	10.0
7	한국	2,796	-7.3	8.3	2,665	-2.9	-4.7	10,910	-6.8

자료: 일본 재무성